

안동종친회, 권기창 안동시장 초청간담회 개최



안동종친회(회장 권철환) 주최 '권기창 안동시장 초청간담회'가 8월 10일 오후 6시 30분 안동종친회관 1층 '양반방상' 식당에서 개최하였다. 안동종친회 부회장단, 각 사업체 대표, 총무협의회, 정·장년회, 부녀회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기원 종친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내빈 소개가 있었다. 내빈 소개가 끝나자 권철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안동에서 권씨로 태어난 것이 축복이며 마지막 봉사하는 곳이 종친회" 라며 "앞으로 권 시장의 성공이 안동권문의 성공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권기창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동시는 많은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장실은 물론, 읍·면·동장실까지도 아래층 1층으로 내려놓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괴롭히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인사말이 끝나자 권철환 회장은 권기창 시장에게 안동권씨 마크가 들어있는 1돈 중짜리 금메지를 달아 주었으며 손복영 부

녀회장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권기윤 의원(옥동)을 소개한 다음 권 회장, 권오갑 감사, 권순협 안동농협 조합장 등 3명이 돌아가면서 건배 제의를 했다.

권 회장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무엇이라도 물어보라며 권하기도 했다. 질의자들은 안동댐 맑은 물을 대구시에 판매하는데 봉화에 있는 수질오염업체가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해결책은, 경북도청이 안동에 있지만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데 해결책은, 태사묘 주변정비사업 재고 등등 여러 가지를 문의했다. 이에 권 시장은 "안동시를 인구 30만 도시로 만들자면 안동, 예천이 통합되어야 하고 또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며 관광객 유치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한 후 헤어졌다.

〈보도부장 권영건〉

안동권씨 정조공파 총회에서 임원 개편

정조공파총회(회장 권순복 37세)에서는 지난 6월 19일 총회에서 3년간 종종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임기 중에 안동시장(권기창 36세)을 배출하는 등 종회의 위상을 크게 향상시킨 권영택 회장님(36세)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회장으로 권순복 회장님으로 선출되었다.

권순복회장께서는 인사말에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향열을 존중하며 종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종원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실천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회장이 될 것을 약속하였다.

10여 년간 종회 총부부장으로 문종 대소사를 책임지셨고 종원들의 돈독화합을 위해 몸소 실천한 젊고 평기 있는 회장선출에 많은 종원들이 발전하는 종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7월 27일에는 새 임원으로 구성된 첫 임원회의에서는 권영택회장님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종중원 일동으로 감사



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총무부장으로는 권오길(35세)님으로 농협 이사와 농촌 발전을 위해 마을이장을 겸하고 계시는 분으로 추대되어 명실공히 안동권씨 정조공파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안동권씨 정조공파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 사무실과 원룸 임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의 사무실과 원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입주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대종회에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관 공실 임대 안내

임대할 부분	면적
원룸 401호	20m ² (약 6평)
원룸 402호	20m ² (약 6평)
원룸 403호	20m ² (약 6평)
원룸 404호	20m ² (약 6평)
원룸 옥탑방	18m ² (약 5평)

◎ 회관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용두동 102-196)

* 제기동역 6번 출구 바로 앞 (도보 1분)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안동권씨 대종회

부 고 - 안동종친회 권희택 고문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동종친회 권희택 고문(부호장공파, 안동시 법상길 7)이 8월 12일 오전 10시 14분께 별세하였다. 향년 87세. 빈소는 안동병원(수상동) 장례식장 10호실, 장지는 안동시 서후면 금계리 선산.

장례식장에는 권해옥 대종회 회장, 권주연 부호장공파종친회장, 김광립 (사)퇴계학연구원 이사장,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등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대형화환과 조끼가 100여개나 된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8월 13일 오전에는 권계동, 권숙동 안동종친회 두 고문을 비롯하여 권주연 부호장공파종친회장, 안동버스 직원 20여명 등 여러 곳에서 찾아오는 문상객으로 줄을 잇고 있었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을 받들어 부의금을 일체 받지 않기로 하였다.

권 고문은 안동고,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 대한석탄공사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안동으로 귀향, 부친 혁모씨(1992년 사망)의 기업을 이어 받아 안동버스를 운영하였다. 부친 권혁모씨는 안동종친회 회장도 역임하였다.

권 고문은 사업뿐만 아니라 권문(權門) 문중 일에도 열정을 쏟아 안동종친회 고문은 물론, 부호장공파종친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안동종친회관 건물 신축 때 성금 2천만 원을 선뜻 내놓기도 했다. 그는 봉사단체에도 힘을 쏟아 라이온스 안동영남클럽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경북 테니스협회 회장,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안동지역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였다. 그는 민선 1기 때 안동시장으로 출마, 낙선의 고배를 마시는 등 아픈 상처를 입기도 했다.

유가족으로 부인 류시경 여사(86)와 1남 3여를 두고 있으며 장남은 서울에서 의사로 근무하다가 지난 3월부터 고인의 유업을 받아들여 이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회사 직원은 130여명이 이르고 있다.

〈보도부장 권영건〉

권기선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대종회 방문



권행완 편집국장, 권기선 전 부산경찰청장, 권해옥 회장, 권오상 사무총장(왼쪽부터)

권기선(權奇宣, 36세, 복야공파) 전 부산경찰청장이 8월 3일 오전 대종회를 방문하여 권해옥 회장과 대답을 나눴다. 권기선 전 청장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석묘리에서 아버지 권근(權在根)씨와 어머니 경주 이씨 이향호(李香鶴)씨 사이의 1남 4녀 중 외이들로 태어났다. 동대구초등학교와 오성중학교,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

교, 경찰대학을 2기로 졸업하고 경위로 경찰공무원을 시작하여 치안정감까지 승진했다. 영주경찰서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서울서초경찰서장, 대통령실 치안비서관 실 행정관, 경기지방경찰청 제3부장, 광주지방경찰청 차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북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 전화번호 : 02-2695-2483~4
-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동정

▲ 권순태 상두산업 회장이 전라권역 국가기반시설 및 민간건설현장 등에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건설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22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권순태 회장은 전북골재협회 회장, 한국골재협회 상임부회장, 전북유도회장, 상두산업 회장 등 활성화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라북도지사 표창 3회,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전북지회장을 역임하면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했으며, 정읍시민장학재단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도 공헌하고 있다.



표이사에 취임했다. 서울 청과는 2022년 '창업 83주년'을 맞이했다. 그는 "서울 청과는 지난 83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변화하는 도매시장과 농산물 유통 환경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권대표는 서울 청과(주)에서 총무부장과 관리부문장, 영업상무 등 주요요직을 두루 거친 대내외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 권일남 명지대 교수가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 제15대 회장에 지난 3월 2일 취임했다. 권일남 신임 회장은



815개의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의 협력 도모와 운영을 지원한다. 권 회장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한국 청소년활동학교 회장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평가위원회 위원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부위원장, 청소년학회 이사, 한국 청소년활동학교 위원장, 청소년수련활동인증부위원장, 청소년학회 이사 등을 역임해 청소년시설과 청소년지도자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다.

▲ 권태용(정조공파, 37세) 한국은행, 대구, 경북 신임 본부장이 7월 30일 취임했다. 권태용 본부장은 1969년생으로 서울 용문고등학교, 연세대 경영학과, 서울 대 경영학석사,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은행 본점에서 근무해 왔다. 안동시 노하동이 고향인 아버지 권연진씨는 철도청에서 토목사무관으로 정년 퇴임했다.



8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대사기념패는 한중교류 공인자격증 같은 것이다.

또한 이를 중국 당기관지가 동정 보도한 유일한 한국인이다.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중 방정부 교류를 위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대사기념패는 한중교류 공인자격증 같은 것이다.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중 방정부 교류를 위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대사기념패는 한중교류 공인자격증 같은 것이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이



8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대사기념패는 한중교류 공인자격증 같은 것이다.

또한 이를 중국 당기관지가 동정 보도한 유일한 한국인이다.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중 방정부 교류를 위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대사기념패는 한중교류 공인자격증 같은 것이다.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중 방정부 교류를 위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대사기념패는 한중교류 공인자격증 같은 것이다.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중 방정부 교류를 위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대사기념패는 한중교류 공인자격증 같은 것이다.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중 방정부 교류를 위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대사기념패는 한중교류 공인자격증 같은 것이다.

권 회장은 지난 2016년 한·중 방정부 교류를 위해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중국 대사기념패는 한중교류 공인자격증 같은 것이다.